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이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권과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요금	1750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 20일 금요일	Issue No.	1750
		Date	July 4, 1969: Fri.

대만해상에서 전투 중공의 포함등 4척을 격침, 격파

(대북 7월3일판, 중동) 국부국방성이 3일, 국부해군이 2일밤, 대만해상에서 중공의 토함 1척, 보급선 2척을 격침, 단 토함 1척을 격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방성대변인의 발표에의하면, 대만해상에서 일어난 국부와 중공군함의 3년만만의 전투에 참가한 국부의 군함은, 전투가 기지에 두사이 귀환하였다. 국부의 소함대는, 2일 복건성 빈항의 강내부에 있는 함선에 발표하였다. 또 중공해군기지를 공격하고, 동소함대는 은수불명의 중공보급선 2척을 격침한후 기지에 귀환하였는데, 함대 또는 승무원에 아무 피해가 없었다. 또 이와 거의 동시에 단 국부소함대는 빈항의에서 중공의 토함과 만나, 이를 격침하였다. 또 이에이은 전투에서 단 국부해군초계정은 두번재의 중공포함과 교전, 거의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토함을 격파하였다. 또 전투에 참가한 국부군함의 수나 명은 아직 명백치않아.

미군포로 3명의 석방을 북비에트남측 발표

(사이공 7월3일판, 에이피) 3일 동경과 홍콩에서들은 아노이방송에의하면, 북비에트남은 미군포로를 마지막에 미군포로 3명을 석방, 기타 전미군포로에대해서 고국으로부터의 신문을 받을것을 허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석방의 입자, 장소, 포로의 시명을 명백치않는데, 동경에서 들어온 방에서는 "북비에트남에서 포로가 된 미병" 으로되어있으며, 격추된 미군기승무원이 대상이라고본다. 미군측은 "북비에트남군제 36, 138, 27연대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고 북비에트남에 철거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동측에서는 이철되는 신병력과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견속하고있다. 북비에트남군은 또 벤.웬트주번으로부터 4개연대, 간보지아국경으로부터도 1개연대를 총칭 의시킨 모양이다. 그러나 국경을 따른 1개연대의 경우에는 이 10일간 전진과 후퇴를 계속하고있으며, 연합군의 입이 약한곳을 노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적의 침투 병력

미정보국은 메르.델라 지방에 북비에트남 제273연대가 다시 배치 되었다고 보고있다. 6월에는 오.치.민 도도를 지나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 북비에트남군 1만명이 침투, 금년에들어 의서의 침투병력은 6만3천명이라고한다. 이것은 "북비에트남으로부터의 침투는 감회하였다고 결론에도 드라" 라는 마사스 국부장관의 발언과는 모순 되는것으로 미군측에서는 "와싱은이 많고있는것은 알수없다" 라는 경향도있다. (제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북비에트남군의 철의와 전방의 소강상태에대해서는 어떠한지 분석을하고있다. 미부장지대를 지나서의 3연대의 철의는, 동지역에 전개중의 미해병대제9연대 7천명의 철의발표에 해당하는 "정적적철의" 라는 분석도있다. 또 벤.웬트주변으로부터의 철의는, 당지의 전우에서 북비에트 남군이 2천명을 입었기때문이라고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이곤 북동의 디전우지대를 위시 하여 좌의에서 철의되는 적의 란시, 무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있으며, "적은 새로운 공격을 준비중이다" 라고보는 미군측도있다.

북측의 포로석방에 미측대표 감사 표시

(파리 7월3일 밤 에이피) 3일에 열린 파리 회담 회담 제24회 본회의에서, 탕-즈 미수석대표는 북비에트남측 미군포로 3명을 석방하는 발표에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이 행위가 금 후 더 광범위한 포로석방에 향한것을 희망한다. 또 포로의 시명의 발표, 포로와 가족의 운동, 상의병포로의 석방등의 인도주의적행위에 향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였다. 또 회담의 진전에 대해서 탕-즈수석대표는 북비에트남, 남비에트남 임시혁명정부대표에대해서, "적어 5개월간에 걸쳐서, 남비에트남정부와는 고집하지안는다고 주장하고있는 당진들의 태도가 진전을 막는 주요 요소가되어있다" 라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이예의 소련 방문

(모스크바 7월2일 밤, 에이피) 아폴로 8호의 선장, 프랭크.보-맨대령은 스칸부인과 2명의 영사를 동반하고 2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소련을 방문하는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일행이 란 민간여행기는 쉐진의 교장으로 도착이 예정보다 1시간이나 지연되며, 보-맨 대령은 "뉴욕에서 모스크바간은 달로부터 지구로돌아가는것과 같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농담을 하였다. 슈레메체프공항에는 워스도르2호의 치르르비행사등, 소련의 우주비행사들이 출迎え하였다. 보-맨대령을 모셔아말도 2차분 인사들하려고하였는데, "나는 대답이 기쁘다" 라고 말한후 웃어 버렸다. 출왕의 진도 다 웃었다. 보-맨비행사의 소련방문후에 소련의 비행사도 미국방문할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여 보-맨씨는 "물론 그의 계획은 점도될것으로 생각한다. 우주비행에 있어서의 협력을, 우주제위의 중요한 일면이다" 라고 말하였다. 보-맨비행사는 9일간 소련에 체재, 소련비행사의 주재지구인 "달의 도시"와, 구리미아의 소련우주통신중앙소등을 방문할 예정인데, 가자르스한의 바이코놀에있는 우주선발사중앙소를 견학할수있는지는 아직 불명, 소련은 우주제위에대해서 비밀주의의 통하고있으며, 보-맨비행사가 만일 일부이지만 관제시설의 방문허가를 받은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중동서 공중. 육상 전투 계속

(에이피 종합 7월 2일 밤) 이스라엘군의 발표에의하면, 2일 스에즈만삼공에서의 공중전에서, 이스라엘군은 에지프트 (해협섬갈) 미그 전투기 4기론 격추하였다. 그러나 에지프트측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미라지기 2기를 격추하였다고하고있다. 이스라엘군은 또, 동군의 젠티기수기가 6월17일, 가이보상공에 침입한것을 확인하였다. 이사건때문에 에지프트공군 기관 2명이 면직 되었고있다. 공중전에 앞선 1일 밤, 이스라엘 들력대는 스에즈만의 에지프트군진지 3개소를 공격 또 아랍. 유격대는 율단강 서안의 이스라엘기지를 습격하였다. 스에즈만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측은 에지프트병 13명을 죽였다고 발표하고있다.

한국의 학생들 헌법 개정 반대 시위 격화

(서울 6월28일 밤, 에이피) 한국대학의 학생 약천명이 27, 28일 양일, 서울시내에서 박정희대통령의 3선을 인정하는 헌법개정반대시위를하였다. 경관대는 석류탄을 사용, 시위를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차에탄 고등학생한사람이 시위대의 포위, 추석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부산에서는 5만명의 반대집회가 열려, 제1야당, 신민당의 유권오당수가 "헌법개정안의 설립을 저지한다" 라고 연설하였다.

(서울 7월1일 밤, 공동) 박정희대통령의 3선을 도모하는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한국의 학생의 시위는 30일 서울의 연세대등 4대학과 대구의 경북대학에 파급하고, 격화의 예측이보인다. 학생시위 시작을한 고려대학생 약천명은 고문을 나오자 모조리 진압되었는데, 2백명은 시내중심부에 집을 유격대시위를 강행, 시민의 주무를 들렸다. 이날의 시위에서 학생, 경관 사상방에 4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당국은 대량전거를 하고, 학생 배령이상이 체포되었다.

포로학살에 보복. 비에트콩이 방송

(동풍 6월30일 밤, 에이피) 동풍에서들은 남비에트남임시혁명정부의 해방방송은, 연합군에의해서 해방전선군 포로가 상해되었다고 주장, 미군포로에대해서 "무슨 보복을 해야한다" 라고 시사 하였다. 동방송은 (1) 6월19일, 사이곤북서 60마일의 다이닝시형무소에서 해방전선포로 백명이 폭발물예의해서 상해되었다. (2) 4월, 비엔.호아성의 단.이에주.호아 형무소에서 다수가 피살 되었다. (3) 4월, 사이곤의 치오아 형무소에서 2명이 총살되고, 120명이 중받되었다라고 보도 하고있다.

미군사령부 비판을 거부

(사이곤 6월30일 밤, 에이피) 미군사령부는 해방방송이 "포로학살에대한 보복"을 보도한것에대해서 비평을 가한것을 거부하고있다. 해방방송의 보도중, 6월 19일의 다이닝시형무소의 사건은 해방전선군의 타렛한 4발로 수인 1명이 사망, 60명이 부상한것에 관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연합군대변인의에하면, 이들 수인의 대반은 정치범이 아디고, 일반범 죄자였다는것이다.

또 4월 10일에는 적타렛트가 아이닌시의 탄약집적소 2개소에 타하, 다이닝성정도 불괴, 3층에 유적되어있는 정치적 수용자 80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사망한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대변인은 이 포적에서 성침의 내외에잇는 정부군 80명도 사망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화도수상이 간보지아로

(푸른펜 6월30일 밤, 공동) 남비에트남임시혁명정부의 원.탄.화도수상은 6일간의 간보지아방문을 위해서 30일 오후, 푸른펜에 도착한다. 이번이 수상취임후 첫번의 국외방문이며, 또 혁명정기 성립후, 동정부요인이 국외에 나가는것도 이것이 처음이며, 국외 큰 의미를 가지고잇는것이다. 또 이번의 방문은 수상으로서의 공식방문이란전에서 혁명정부가 실체를 갖는 정권이라는것을 사실로 보이는데이며, 이에의해서 혁명정부의 국제적지위는 미 올라가며, 최종단계에들어간 비에트남정세에 큰 영향을 줄것이다.

독립기념일

오늘 7월4일은 미국독립기념일로 미중앙정부기관, 주, 시정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각개인회사, 공립 사립학교등 모두가 사무를 다치고 기념을 하고있다. 3일이나 연속되는 긴 제일을 당해서 고용사고등 업기를 고대한다.



닉슨대통령 아폴로 11호 착수를 시찰 아세아 5개국과 공산권 루마니아를 방문

(뉴욕 6월28일밤, 에이피) 백아관은 28일, "닉슨대통령은 7월23일 워싱턴을 출발, 태평양상에서 아폴로 11호의 착수를 본후, 비올빈, 인도네시아, 라이, 인도, 파키스탄의 동남아세아 5개국을 방문, 또 8월초순에 루마니아를 방문한다" 라고 발표하였다.

루마니아방문은 동국의 니코라예, 라우세스크국가평의회장의 초청에 대답하는 것으로, 이초대는 2월말부터 3월초에 걸쳐서, 루미 루마니아대사관을 통해서 전래되었었다. 미대통령이 철의 장막을 넘은것은 냉전시대 처음으로, 제2차대전당시에는 그 루즈벨트대통령이 소련의 알마에서 연합국수석의 회담, 또 드루덴대통령도 45년의 7, 8월, 동독의 뮌헨에서의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쿠라대통령 보도전은 반포시 않다, 북스탈 회담에는 언급치 않고, "미대통령의 공산권방문은 처음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미고관측에 의하면, 닉슨대통령의 루마니아방문에 대해서 미국은 사전에 소련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고관측은 "우리는 주권국가의 고섭에, 소련의 의향을 하진 않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또 루마니아의 방문은 반소의 자세를 보이는것도 아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은 오늘에 있어서의 평화의 문제의 결여이며, 그들도 지금이 대결의 시대가 아니고 협회의 시대라는것을 느끼고있는것을 표시하는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단 공산권 국가도 방문

루마니아방문을 위시하여 대통령의 단 공산권제국에의 방문도 예상된다. 백아관측에서는 "단 동구제국으로부터의 초대도 받고있으며, 대통령은 단 기회에 방문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강도에 걸친 여행의 최초의 단계에서는, 닉슨대통령은 7월 24일, 중부태평양상에서 외수 포함의 미공보 오프닝으로 하고, 아폴로 11호 3비행사의 달로부터의 귀환을 환영한다. 11호의 착수처점은 존슨도로부터 3백마일의 해상이다. 또 동남아세아제국의 방문의 목적은 대통령의 장년에 걸친 아시아의 평화와 진보에의 관심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성대한 의예보도, 각국수석의의 긴급한 회담이 예정되어있다. 이번의 여행의 정취한 입자는 아직 자정되어있지 않는데, 대통령은 워싱턴에 8월3일 전후에 귀환할 예정이다.

라자스 국무장관

또 라자스 국무장관은 비올빈, 인도네시아 까지 수행한후 대통령과 헤어져, 일본의 임미경제관 동위에 출석, 한국, 대만, 뉴지랜드, 오스트레리야를 방문한다.

인사소식

지난 6월초에 그국관경여행을 떠났던 본암 동경도, 리두진, 미봉은 3여사는 한국에 그국관경 여행일행과 동반하여 각처를 다니며, 산천경개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한후, 단축한 시간에 침적을 방문하고, 6월회일에 무사이 화환하였다고 한다.

동지회 건물 매각 아직 미정

동지회사무실건물인 2층세멘트건물과 뒤에있는 9세대 아파트를 모두 판매하려고 1년전에 동지회년매회회에서 워싱턴주, 오지매매중개인 오.마스.훈씨의 주선으로 이건물매각을 추진하여 오준근, 지난 주일에 작자가 나서서 18만불도 이건물을 사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동지회건물 매회위원회에서는 의의를 소집하고 회의한결과 가격이 너무 나저서 이를 퇴각하였다고 한다.

주말 리정보단

년매금 고안라 유에나 10.00 주보매금 고안라 유에나 10.00

